



STIMA

Bulletin

자랑스러운 STIMA人

기민호

자랑스러운 STIMA人

“ 국내 최초의 정보통신분야 디지털 도서관 구현과 더불어 정보수집, 관리, 제공이라는 일련의 지식정보 활동 가운데, 일찍부터 정보창출 마인드의 중요성을 간파하여 70년 대 말부터 전문정보의 조사 분석 체제 구축에 남다른 열정을 쏟으셨다. ”



기민호

글 _ 박계숙

기민호 사장은 1960년대 초 연세대학교에서 그 당시 신학문이던 도서관학을 전공한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도서관계 발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셨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지식정보 산업현장에서 기업가로서의 역량을 한껏 발휘하고 계시다.

기민호 사장은 우리나라 최초 정부출연 연구소였던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에 입소한 이래, 1978년 4월에는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모태인 한국통신기술연구소에서 도서정보실 책임자로 출발, 40여 년간 국내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궤를 같이 하면서 IT 기반 기술정보 인프라 구축의 꽃을 활짝 피우심으로써 선도적인 디지털 도서관 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첨단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의 선구자로 우뚝 서신 분이시다.

내가 그 분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82년 12월 ETRI에 입소하여 실장님으로 모시게 되면서부터이며, 지금까지도 현장업무에서 그 분의 많

은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는 실정이다. 80년대 초 정보학 강의에서 해외 사례를 통해 도서관 전산화와 정보검색 시스템을 개념적으로만 배우던 당시, 그리고 정보검색 시스템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나온 두어 편의 학위 논문이 전부이던 시절, ETRI 도서관은 이미 자체 기술력으로 영문 데이터를 대상으로 정보검색 시스템의 개발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선구자적 역할은 도서관학 학도들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다.

ETRI가 타 기관에 비해 전산실의 컴퓨팅 파워나 네트워크 시설이 우수한 환경이었으나 도서관에는 한글을 영문 대응코드로 입력하는 더미 단말기(Dummy Terminal) 한 대가 컴퓨터 시설의 전부였던 당시 ETLARS 라는 실용 정보검색 시스템을 개발, 운영한 것은 국내 도서관계 발전에 커다란 획을 그은 계기가 되었다. 이후 90년대에 한국통신의 하이텔을 통해 범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범용 검색엔진

자랑스러운 STIMA人

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90년대 후반까지 ETLARS 시스템은 매년 수차례씩 외부 발표에 초청될 정도로 국내에서 성공한 정보검색 시스템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었다. ETRI 도서관이 지금까지도 시스템 개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은 초창기부터 그 기술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해 온 결과 축적된 것이며, 지금처럼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로 끊임없는 변화를 기해야 하는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도서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기민호 사장은 국내 최초의 정보통신분야 디지털 도서관 구현과 더불어 정보수집, 관리, 제공이라는 일련의 지식정보 활동 가운데, 일찍부터 정보창출 마인드의 중요성을 간파하여 70년대 말부터 전문정보의 조사 분석 체제구축에 남다른 열정을 쏟으셨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현재 IT분야 최장수 주간동향지인 '주간기술동향'(1981년 창간)을 비롯하여 각종 정기간행물, 전문조사분석서, 핸드북, 용어사전, 전문기술자료 등 이루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방대한 양의 전문정보를 창출하셨으며, 출판과 방송매체를 통해 과학기술정보의 대량 보급과 대중전파에 앞장서셨다. 이미 30년 전 이러한 정보조사, 분석, 창출이라는 앞서는 생각을 도서관 업무현장에서 구현하셨던 점은 미래를 내다보시는 남다른 안목이 있으셨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 ETRI 도서관은 연구단지 내 도서관계에서는 처음으로 자료의 수집, 관리에서부터 정보조사 분석과 범국가적 정보유통까지 포괄하는 완전한 기술정보센터를 구

축하였으며, 그 후 정보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드높이고 이의 보급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IT분야 국가 기술정보센터 설립이라는 업적을 남기셨다.

도서관계, 나아가서는 지식정보 활동 영역에서 누구보다 왕성한 의욕과 열정으로 자신의 이상을 펼쳐 보이신 그 분의 수완과 능력은 수천 명에 이르는 대형 연구조직의 기획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부장, 기획관리부장, 미국사무소장 등의 역할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셨고, 일선 현장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주)지식정보'를 설립, 기업가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등 아직까지도 후배들에게 든든한 버팀돌로 남아 계시다. 그 어느 기관보다도 큰 집이었던 ETRI 기술정보센터를 위해 그 분은 오랜 세월동안 튼튼한 지붕이 되어 주셨으며, 뛰어난 포용력과 친화력을 발휘하시어 타전공 분야 인력들까지 조직의 목표를 향해 조화롭게 정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다. 수십 년 동안 그 분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각 전문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는 평소 인화를 중시하여 누구에게나 다정다감하게 대해 주실 뿐 아니라, 늘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해 주는 인자한 성품과 넉넉한 여유로움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열정적인 스포츠맨으로서 전블맨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시는 그 분의 늘 부드러운 미소와 격려의 목소리는 나도 훌륭한 선배를 가졌다는 자랑스러운 마음을 절로 일으키게 한다.